

코로나19 시대의 보육: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와 과제* **

Child Care in the Covid-19 Era: Operation and Tasks of Child Care Centers

신나리¹ 김상림² 이주연³ 송승민⁴ 백선정⁵

Nary Shin¹ Sanglim Kim² Joo-Yeon Lee³ Seung-Min Song⁴ Sunjung Baek⁵

* 본 논문은 2020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 주제 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본 논문은 2020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1 제1저자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2 교신저자

인천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e-mail : slkim@inu.ac.kr)

3 공동저자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교수

4 공동저자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5 공동저자

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ABSTRACT

Objective: Covid-19 is changing many aspects of child care program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how the pandemic and mitigation efforts affected the experiences and practices at child care centers in the summer of 2020.

Methods: Focus group interviews and mobile surveys were conducted with principals and teachers of child care centers in August and September 2020. Descriptive statistics including frequency distribution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and mean differences were used to analyze the survey data with SPSS 22.0.

Results: It was found that each sector of child care settings experienced different difficulties and had various needs. Young children's lack of energy, child care teachers' workload and stress, and principles' efforts to interrupt transmission of the infectious disease based on insufficient government guideline and supports were revealed as the main experiences.

Conclusion/Implications: The Covid-19 pandemic has had a tandem of influences on daily life at child care centers. As policy makers consider additional guidelines or supports measures to prevent the infection and spread of Covid-19 at child care centers, long-term as well as short-term plans at various levels should be considered to meet the unique needs of child care programs.

key words Covid-19 in child care programs, experiences of teachers and principals under Covid-19, infection control at child care centers

I. 서론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일여 년의 시간이 경과했다. 2021년 2월 1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83,199명이며, 이 중 9세 이하 아동의 비율은 약 3.9%(3,241명)에 달한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n.d.).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에서 최초로 발생했으며,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인 유행을 의미하는 팬데믹(pandemic)을 선포한 이후 국내외 확산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공급을 목전에 두고 있으나, 사회적 면역 형성과 치료제의 개발 및 보급이 담보되지 않은 현실을 고

려할 때 코로나19의 위험이 완전히 종식되는 시기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 발생과 글로벌 팬데믹은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의 변화로 이어졌으며, 공보육체계의 확립과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의 개정으로 보육과정의 질적 제고를 추구하던 보육현장 또한 예외는 아니다. 2020년 2월 27일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과 함께 전국 어린이집의 전면 휴원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휴원 기간 중 학부모의 긴급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보육·돌봄 실시계획이 발표되었다(보건복지부, 2020). 이후 수차례 어린이집 휴원의 연장 및 해제가 이루어졌고, 2020년 하반기부터 지역 내 감염 수준에 따라 지자체 별로 휴원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2020년 2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유행에 대비하여 전국 어린이집에 대응 지침(보건복지부, 2020)을 배포하였다. 이는 질병관리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을 어린이집의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감염증 관리체계, 유관기관 협조체계,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내 감염예방을 위한 운영 및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육료 출석인정 특례와 일시폐쇄 및 휴원 기준, 대체교사 지원기준 특례 등이 포함된다. 이후 국내외 상황의 변화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유·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2021년 1월 28일 현재 대응지침 VII-2판(보건복지부, 2021)을 배포하였다.

어린이집에서의 감염병 대응 및 예방 정책의 실행은 보육현장의 변화를 가져왔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육현장의 변화와 관련된 경험을 탐색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 원장 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어려움을 고찰한 박영아와 조미현(2020)의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 어린이집 내 관리체계를 구성하여 감염관리 및 예방교육을 진행하면서 정부 지침에 따른 대응을 하고 있었으나, 보육교사의 업무과중과 부모의 협조 부족 및 대체교사 수급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희나(2020)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특수 상황에 주목하여 D시의 가정어린이집 원장 8명을 개별 면담하여 어려움을 탐색하였는데, 보육료 감소로 인한 재정적 위기와 긴급보육 상황에서의 서류업무 과중으로 인한 어려움이 보고되었다. 서울과 경기 지역 소재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원장 50명을 대상으로 한 박인숙과 배지현(2020)의 연구에서 또한 어린이집 운영과 함께 교사관리, 부모관리의 어려움이 나타났으며 방역용품 지원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보고되었다.

이와 함께 영유아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변화된 경험을 탐색한 연구 또한 소수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아현(2020)은 직장 어린이집 교사 5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긴급보육에 대한 경험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보육교사는 고용에 대한 불안감과 감염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교육적 지원의 위축과 업무증가로 인한 부정적 경험을 보고했다. 반면 소수 영유아에 대한 개별적 지원과 안전교육 강화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예린(2020)은 100여명의 보

육교사를 대상으로 서술적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육교사는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정서를 보고했으며, 마스크 속에 갇히게 된 새로운 일상과 사라진 접촉 등으로 인한 혼란 및 업무 가중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 감염예방을 실시하면서 새로운 변화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언택트 시대의 확산을 고려할 때, 보육교직원의 경험을 고찰하는 추가적인 연구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서 고찰한 소수의 선행연구가 특정한 어린이집 유형이나 소재지에 국한된 보육교직원들을 연구대상으로 수행했음을 감안할 때, 보다 다양한 유형과 지역이 포함되도록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어린이집 유형에서 근무하는 원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유행 이후의 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나타난 또 다른 측면의 변화는 달라진 보육실태이다. 여기에는 원아 수 변동이나 일과운영의 변화를 포함한 운영 실태, 코로나19 감염 및 예방과 관련된 대응 실태, 영유아의 행동특성의 변화 실태, 그리고 정책 지원 및 요구 실태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보육실태의 변화는 앞서 살펴본 보육교직원들의 경험을 통해 유추될 수 있다. 즉, 휴원과 긴급보육으로 인한 보육료 감소와 교직원 인건비 지출에 대한 원장의 어려움(손희나, 2020)은 일정 부분 어린이집 현원의 변동에 기인한 것으로, 그 변동의 추이는 기관유형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각 어린이집에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감염 및 예방과 관련된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마스크 착용 필수 여부 등 개별 어린이집에 따른 대응 실태에서의 차이(박영아, 조미현, 2020)가 보고되고 있어, 전반적인 감염병 대응 실태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조사가 요구된다. 또한 어린이집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접촉 최소화는 일과 운영과 연동되어 보육 활동의 시간과 내용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행동 특성에도 변화가 나타났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기와 학기 초에 확산되면서 신입원아 적응과 부모교육 등 가정과의 연계에서도 변화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대체교사 지원과 소독물품 공급 등 정책 지원 및 요구와 관련된 보육현장의 실태에 대해서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보육 실태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어린이집에서의 생활과 기관 운영 방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실증적인 자료가 미미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경험을 탐색하고 이와 관련된 보육실태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대부분의 코로나19 관련 선행연구 결과가 질적자료 또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양적자료에 근거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소재한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과 교사를 표집하고 질적자료와 양적자료를 병행 수집하여 혼합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위드코로나 시대를 마무리하고 발전적인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지원과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해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의 경험은 어떠한가?
 1-1. 코로나19 유행 이후 어린이집 원장의 경험은 어떠한가?
 1-2. 코로나19 유행 이후 보육교사의 경험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코로나19 유행 이후 어린이집에서의 보육 실태는 어떠한가?
 2-1. 코로나19 유행 이후 어린이집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2-2. 코로나19 유행 이후 어린이집의 감염병 대응 실태는 어떠한가?
 2-3. 코로나19 유행 이후 어린이집 영유아의 행동 특성은 어떠한가?
 2-4.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정책 및 지원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크게 질적연구인 FGI 참여자와 양적연구인 실태조사 참여자로 구분된다. FGI는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연구자가 정한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룹 내 상호작용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Morgan, 1997),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경험을 공유한 보육교직원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때, 코로나19 상황에서 겪게 되는 경험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직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초점집단을 직무에 따라 원장집단과 교사집단으로 구분하였다. FGI 참여자는 경기, 대구, 충북, 전남 소재 어린이집 원장 7명과 서울, 경기, 대구, 충북, 전남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6명으로, 재직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을 고려하여 편의표집으로 모집하였다. FGI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FGI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원장			교사			
	연령	지역	설립유형	구분	연령	지역	설립유형
원장A	45	경기	국공립	교사A	66	대구	민간
원장B	48	경기	민간	교사B	33	충북	직장
원장C	50	경기	직장	교사C	44	경기	국공립
원장D	41	충청	민간	교사D	-	경기	민간
원장E	50	경기	가정	교사E	41	서울	민간
원장F	53	대구	국공립	교사F	-	광주	가정
원장G	-	광주	가정				

주. 일부 참여자는 연령을 밝히지 않음.

한편, 실태조사는 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눈덩이표집을 통해 선정된 전국의 원장 745명과 보육교사 1,3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표 2 참조). 먼저 원장의 경우 평균연령은 만 48세, 보육경력(년)은 18.55년으로 보고되었다. 재직 어린이집의 소재 지역은 수도권이 과반을 차지하였고, 경상권이 다음으로 높았으며(24.82%), 그 외 지역의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소재지역의 규모면에서는 중소도시 어린이집의 원장이 64.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재직기관의 설립유형은 가정어린이집이 과반이었으며, 국공립·직장·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 정부지원시설의 비율은 27.52%였다. 한편, 지역사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는 68.05%, 어린이집 관계자 중 접촉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또한 12.08%로 보고되었다.

표 2. 실태조사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구분	원장(N = 745)	교사(N = 1,347)
연령(세) ¹⁾	48.20(7.13)	38.06(9.94)
보육 경력(년) ²⁾	18.55(9.01)	7.64(4.96)
재직기관 소재지역 권역		
수도권	399(53.56)	569(42.24)
충청·강원권	84(11.28)	275(20.42)
경상권	185(24.83)	372(27.62)
전라·제주권	77(10.34)	131(9.73)
재직기관 소재지역 규모		
대도시	201(26.98)	597(44.32)
중소도시	484(64.97)	625(46.40)
농산어촌	60(8.05)	125(9.28)
재직기관 설립유형		
정부지원시설	205(27.52)	520(38.60)
미지원시설-일반	163(21.88)	499(37.05)
미지원시설-가정	377(50.60)	328(24.35)
재직기관 감염병 관련 특성		
지역내 확진자 발생	507(68.05)	882(65.48)
어린이집 관계자 중 확진자 발생	10(1.34)	30(2.23)
어린이집 관계자 중 접촉자/자가격리 대상자 발생	90(12.08)	244(18.11)

주1. 만 연령임.

주2. 원장의 보육경력(년)은 원장경력(년)과 교사경력(년)을 합산한 것임.

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연령은 만 38세, 경력은 7.64년이였다. 재직기관의 지역은 원장과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으나 충청·강원권의 참여 비율이 원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소재지역의 규모 또한 중소도시와 대도시가 각각 46.40%와 44.32%로 유사하게 보고되었다. 재직기관의 설립유형은 정부지원시설, 일반 미지원시설, 가정어린이집의 비율이 각각 38.60%, 37.05%, 24.35%로, 가정어린이집의 비율이 다소 낮았다. 재직 어린이집에서 확

진자가 발생한 경우는 2.23%로 낮았으나, 접촉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는 18.11%로 원장의 경우보다 다소 높았다.

2. 연구도구

FGI 조사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린이집에서의 업무, 방역, 대응체제, 근무여건, 운영방식 등에 관해 묻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해당 질문지는 공동연구자들의 논의를 거쳐 작성하였고, 질문내용이 연구목적에 부합되는지 현장전문가 2인(아동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요청하여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후 사용하였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두 집단에게 동일한 면담질문지를 사용하였으나 초점 집단에 따라 질문에 할애하는 정도나 확장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를 위해 사용한 연구도구는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설문문항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영유아 돌봄 관련 국내 선행연구(손희나, 2020; 정익중, 2020; 최예린, 2020)와 정부에서 2020년 8월에 공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V-2판’(보건복지부, 2020) 및 본 연구의 FGI 분석 결과를 기초로 설문문항이 개발하였다. 설문 문항은 연구대상 개인과 소속 기관에 대한 일반적 배경 특성 문항, 현황에 대한 실태 문항, 그리고 요구 및 평가와 같은 의견 조사 문항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연구대상이 직접 기입 문항(예: 원아 수), 선다형 문항 및 리커트 척도 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개발 후 각 문항을 타당하게 응답할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하여 원장용과 보육교사용으로 구분하여 제작하였으며, 8인의 보육현장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확정하였다.

3. 자료수집 절차

FGI는 2020년 8월 10일과 8월 14일에 각각 원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면담에 앞서 FGI 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면담의 전 과정을 기록하고 녹화하였다. 면담은 줌(Zoom)을 이용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자 외에 공동연구자들이 동석하여 면담 진행과정을 모니터링 하였다. 원장 대상의 면담은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되었고, 교사 대상의 면담은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면담 이후 추가적으로 SNS를 통해 의견을 보내온 FGI참여자의 의견 또한 분석에 포함하였다.

실태조사의 경우 2020년 9월 1일부터 3일까지 어린이집 원장 6명, 보육교사 7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적절성과 설문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하였다. 본조사는 9월 7일부터 16일까지 모바일 설문지를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원장용과 보육교사용 질문지의 링크가 연구설명서와 함께 임의 선정된 원장 및 보육교사에게 발송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원장

은 총 800명으로, 특정 설립유형의 비율이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할당하여 가정어린이집 원장 53명이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중복응답 등으로 분석이 불가능한 2명이 제외되어 총 745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보육교사의 경우 총 1,806명의 응답자 중 연장반 교사, 보조교사 등 본 연구의 대상자가 아닌 경우 364명과 데이터 클리닝에서 95명이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총 1,34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FGI 자료분석을 위해 녹화한 FGI 내용 자료를 연구보조자가 전사하여 문서화 하였으며, 연구자들은 전사한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며 집단 내 분석(within-group analysis)과 집단 간 분석(between-group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집단 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보육경험에 대한 중심 주제를 도출하였고, 집단 간 분석을 통해 두 초점집단의 경험을 독립적인 시각에서 담아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Moustakas(1994)가 제안한 단계별 의미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진술들로부터 의미있는 기술을 선별하고, 이로부터 일관된 내용요소를 선정한 후 주제별로 묶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주제별로 개별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생각을 원문대로 기술한 후 이를 다시 의미의 관점에서 재기술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집단 전체의 경험과 생각을 원문대로 기술하고 이를 의미관점으로 재기술하였으며, 통합과정을 통해 집단별로 유사하거나 독특한 주제와 의미가 도출되도록 하였다. 공동연구자 2인이 함께 자료를 분석 및 해석하였으며, FGI에 참여한 원장 1인과 교사 1인에게 연구결과를 확인하여 참여자 확인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을 통해 원장 대상 FIG에서 36개 의미단위요약, 16개 하위범주, 5개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교사 대상의 FIG에서 26개의 의미단위요약, 11개의 하위범주와 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한편 실태조사 자료의 경우, 문항별 응답의 기초 통계를 위해 SPSS 22.0을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및 빈도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문항 중 아동의 발달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이 요구되는 문항은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보육교직원의 경험

1) 원장의 경험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경험에 대한 FGI 자료를 분석한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의 주제범주가 도출되었다. 범주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 이후 겪게 된 어린이집 원장의 경험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코로나19 유행 이후 어린이집 원장의 경험

범주	하위범주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이 처한 문제적 상황	원아 수 변동에 따른 반 운영의 어려움 부모와 소통 및 신뢰의 어려움 아이들의 활동 제한과 스트레스, 적응의 문제 보육활동 제한과 업무 증가로 지쳐가는 교사
코로나19 상황 이해와 대처에서의 차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정도와 관련된 지역차이 시설 유형에 따른 차이 가정과 기관, 지자체와 기관 간 입장 차이 어린이집(보육교직원)이라는 특수성
대안적 보육프로그램 개발노력 및 한계 인식	새로운 대안 모색과 활용 노력 대안의 한계
새로운 상황발생에 대한 책임부담	온전한 책임 확진 시 책임에 대한 두려움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지원요구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확진자 발생 시 처리 및 대체 매뉴얼의 문제 인건비, 보조인력 지원의 필요성 능동적, 지속적인 지원과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 필요

주. 지면크기 상 의미단위는 생략하였음.

(1)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이 처한 문제적 상황

코로나19의 유행은 어린이집 전반에 매우 많은 변화를 야기하였고, 어린이집 원장은 이를 문제적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반 운영의 어려움, 부모와의 소통 및 신뢰의 어려움, 영유아의 활동 제한과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문제, 보육활동 제한과 업무 증가로 지쳐가는 교사의 어려움 등 다양한 상황이 포함된다. 특히 2020년 2월말에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은 신학기과 맞물려 직접적인 운영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신입원아가 들어왔던 한 반이 통으로 다.. 이제 그만두게 된 상황이 온 거예요 하루도 등원하지 않고...(원장E)
처음 이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연장반 교사를 한 3명 정도는 채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연장반에 대한 운영 자체가 좀 여러 변수들이 있었고 우선은 일단 연장 선생님을 1명만 채용을 하고 ... (중략) 지금은 이제 연장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지금은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원장A)

또한 신입원아 오리엔테이션이나 부모참관 활동 등의 제약은 부모와의 소통 및 신뢰형성의

어려움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부모님과 첫 만남이 스텝이 꼬였다고 할까요?”(원장B), “신입학부모님들과의 라포 형성에 문제가 생겨서...”(원장E) 등의 이야기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부모와의 소통이라는 원장A와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유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실외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 또한 교사의 마스크 착용이 영유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엿볼 수 있었다.

아이들과 잠깐 나가는 것조차 민원이 들어와서 아이들이 등원했을 때는 어린이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가 어려운, 아직까지는 상황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원장A)

교사들이 안 그래도 애들하고 마스크 끼고 하루종일 애착 형성도 안 되고... 애들이 교사의 마스크 낀 모습을 보면서 막 울어요. 그럴 때 더 손이 가고 힘든데...(원장G)

어린이집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사의 보육활동이 변화되고 업무과중이 나타나고 있음을 문제적 상황으로 인식하였다. 교사뿐만 아니라 운영자의 입장에서 교사의 업무과중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업무과중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야기하여 교사와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장은 해당 내용을 주의 깊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서 지도점검까지 이번에 전국적으로 내려오면서 CCTV까지 돌려보면서 선생님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을 하고 활동을 하는지... 또 그 뿐만 아니라 뭐, 점심시간에 일정 거리를 유지를 해서 아이들의 밥을 먹이는지 아이들하고 이야기 할 때 혹시라도 선생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건 아닌지 까지를 점검을 하면서 교사들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교사들의 인권은 도대체 뭐야... (중략) 적어도 지금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지금 지쳐있는 모습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이거는 곧 아동학대하고저는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원장E)

(2) 코로나19 상황 이해와 대처에 대한 차이 인식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각 어린이집의 이해와 대처는 다양하였는데, 원장들은 이러한 다양함을 지역 및 설립유형 등에 따른 차이로 인지하고 있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지역 및 발생정도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큰 차이가 발생하여,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의 어린이집인 경우 한 반이 모두 퇴소한 경우도 있었던 반면, 등록 원아수나 출석원아수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시설 유형에 따른 차이도 언급되었는데, 영아가 대부분인 가정어린이집은 신체적 접촉이 많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업주가 방역, 대체인력, 마스크 등을 지원한 직장어린이집은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덜 경험하였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외국인 아동이 많이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환자가 발생이 많아질 때

막, 그 지역으로 대피를 아닌 대피를 하고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아이를 보육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갑자기 줄퇴소를..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원장D)
지원이 이제 아무래도 규모나 시설의 어느 유형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민간이나 가정은 온전히... 이게 운영에서의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원장E)

원장들은 코로나19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함에 있어 어린이집과 부모, 지자체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그러한 차이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보육 서비스의 수요자, 공급자 그리고 관리자가 보육에 대한 관점이나 보육 서비스의 목적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수한 상황에서 주체별로 다른 입장 간 차이는 보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두고 줄여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부모님들은 어떤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저도 좀 민망한 경우도 부모님들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어린이집과 가정 둘 다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요.(원장B)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처에서 경험되는 또 다른 차이로, 원장들은 보육교직원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인과는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행정기관에서 지원받은 무료 소독제가 너무 독해 소독제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한다는 원장E의 이야기, “직업이 이러다보니 더 조심해야...”라는 원장D의 하소연은 일반인들과 구별되는 보육교직원의 특수성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이는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를 장시간 보호하는 어린이집(보육교직원)의 특수성으로 인해 더욱 조심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반대로 보육교직원들에게 큰 부담과 책임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이는 네 번째 범주에서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3) 대안적 보육프로그램 개발노력 및 한계 인식

보육전반에 변화를 야기한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다양한 보육프로그램과 활동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부모와의 비대면 상호작용을 위해 키즈노트, 전화면담 등의 빈도를 높였고(원장C, 원장D, 원장E), 부모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원장E), 놀이키트를 개발하여 제공하고(원장B, 원장D), 유튜브 방송채널을 개설하는(원장D) 등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원장들은 그러한 대안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였다. 저조한 부모참여율, 키즈노트 등을 통한 상호작용의 분명한 한계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 활동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는 열린 어린이집의 운영 방법이나 지역사회 연계 방법의 전환을 현실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시점임을 의미한다.

전화로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키즈노트에 사진을 볼 수 있도록 보다 많이 올려드리고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하려는 노력 말고는 지금 어떤 대안이 좀 없더라구요.(원장E)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 부모면담을 하러 직접 방문해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20%도 안 되는 인원이 방문 해주셨고, 또 부모님들 같은 경우, 그냥 전화 상담으로 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원장D)

(4) 새로운 상황발생에 대한 책임부담

네 번째로 도출된 주제범주는 앞서 설명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이해 및 대처에 대한 차이’ 범주의 어린이집(보육교직원)이라는 특수성에 대한 인식과 맥을 같이 한다. 원장들은 어린이집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이어졌다. 확진자 발생 시 기관정보 공개로 인해 어린이집이 폐원할 수 있다는 두려움(원장E), 주변지역 확진자 발생 시 운영 여부 판단의 어려움(원장B), 비상 긴급상황에 대한 명확한 지침 부족(원장A, 원장B, 원장E), 확진자 발생 시 행정기관의 책임 전가(원장C), 어쩔 수 없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긴급보육 상황(원장E) 등은 모두 코로나19 발생 시의 모든 판단이 어린이집 원장에 있고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온전히 어린이집이 져야한다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복지부, 도청, 시청에 다 전화를 해봤는데 다 답변들이 굉장하.. 음.. 친편일률적으로 “잘 모르겠다”였어요. “잘 모르겠다”. 그니까 어떤 정확한 지침을 주지 못하는 상황인거죠. 그래서 ○○시 재해대책본부 그쪽으로 전화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담당 이 아니라서 말씀드릴게 없다. 그거는 원장님이 결정하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경우에 책임은 다 저한테 있는 거잖아요. (원장B)

이와 더불어 확진자 발생 시 받게 될 비난과 정신적 부담감도 이들이 경험하는 두려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름 휴가기간을 잡고 선생님들 연차를 사용하게 했는데 어디 갔다가 코로나 환자와 경로가 겹친다던가. 이러면 마녀사냥을 당하고,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이 어디에 연관이 지어진다고 하면 뉴스에서도 더 자극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냥 집에서 꼼짝없이 있었다고 하는데 진짜 원장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원장D)

(5)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지원요구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들의 경험 중에는 갑작스러운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한 대처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에 대한 경험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행정적 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아쉬움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과 관련하여 미흡하다고 언급된 부분은 확진자 발생 시 처리 및 대처 매뉴얼의

문제(원장B, 원장G), 단발적이고 일원화되지 않은 행정지원(원장C), 확진자 발생 시 행정기관의 수동적 태도(원장E), 대응지침에 명확한 한계규정과 책임소재 명시 부족(원장E) 등이었다. 이러한 원장들의 토로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일관성, 능동성, 지속성, 명확성, 효율성,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성인용 마스크도.. 뭐 사회복지과부에서도 얼마주고 아동복지과에서도 얼마주고 이렇게.. 대체로 일원화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중략) 오늘은 사회복지과에서 준다고 해서 가면 10장 주고, 오늘은 아동복지과에서 준데서 가면 몇 장 주고... 그거 모아서 한 번에 주면 좋잖아요.(원장C)

구체적으로, 원장들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보조인력 지원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원아수의 감소 및 변동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요청으로, 실제로 지자체로부터 인력지원을 경험했던 원장F는 높은 만족도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2) 교사의 경험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육교사의 경험에 대한 FGI 자료를 분석한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의 주제범주가 도출되었다. 범주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 이후 겪게 된 보육교사의 경험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코로나19 유행 이후 어린이집 교사의 경험

범주	하위범주
코로나19로 인해 우려되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교사-영유아의 상호작용 위축과 사회성 발달에 대한 우려 영유아의 실외 놀이활동 및 외부활동의 감소
교사의 역할 변화: 방역	마스크 착용 관련 매뉴얼에 대한 요구 장시간 마스크 착용의 어려움 방역을 위한 노력과 이로 인한 어려움
체력적으로 지쳐가는 교사들	놀이중심 보육과정을 위한 교사의 노력과 증가하는 피로도 코로나19 유행 이후 신체적으로 피로한 교사들
심리적으로 지쳐가는 교사들	심리적으로 위축된 교사들 개인적 활동 축소로 커져가는 스트레스
가정 및 지자체의 지원요구	더욱 중요해지는 가정과의 소통 어린이집 및 가정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 요구

주. 지면크기 상 의미단위는 생략하였음.

(1) 코로나19로 인해 우려되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코로나19로 인해 휴원 및 긴급보육이 이루어졌으며, 교사들은 신입원아의 어린이집 적응이 평소보다 어렵고 길었다고 이야기하였다. 특히 “초반 3, 4월은 만 1세, 2세 친구들이 거의 막 오전에는 울음바다였고”라는 교사B의 이야기에서 초반 영아들의 적응에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들로 인해 교사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영아들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어린이집도 있었다(교사D, 교사E).

어린이집 적응 부분에 있어서 뭐 저희가 긴급 보육할 때 뭐 유아반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신입원아들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달이 다양하기도 했고 한 명이 나오면, 그 다음 주에 한 명 나오고, 그 다음 주에 한 명 나오고 해서 적응 할 때 쯤 하면 같이 울면서 다시 적응을 시작하고 그래서 좀 7월까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공간에 대한 안정감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아들도 발달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많이 받지는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교사B)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는 급·간식 및 낮잠 시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집단놀이보다 개별 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대응지침을 안내하였다. 이렇게 어린이집 내에서 거리 두기를 시행하면서 교사 및 또래와의 신체적 접촉이 감소하고, 영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사회적 관계를 위축시키고,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서로의 표정을 완전히 인지할 수 없어서 상호작용 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교사들은 마스크를 종일 착용하는 경우 서로의 표정을 완전히 볼 수 없어 유아 간 갈등 해결이 원만하지 않으며(교사C), 서로의 감정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영아들과의 상호작용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교사A, D, F). 또한 실외놀이와 외부활동의 감소로 영유아의 신체적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염려하고 있었다. “한참 뛰어놀아야 하는 만 4, 5세 같은 경우는 그게 충족이 안 되면 많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라는 교사A와 “언어치료를 놀이치료를 다니는, 미술치료를 다니는 친구들이 한, 두 명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못 나가서” 염려하는 교사E의 이야기는 팬데믹 상황을 장기간 경험하고 있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달적 궤적을 추적해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활동하는 걸 사진으로 찍어서 엄마들에게 보내주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스킨십 하는 부분이 사회성 발달에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하고 있으면 엄마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들이 이제 변화해 가는 것 같아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교사A)

(2) 교사의 역할 변화: 방역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발열확인, 수시소독 및 손 씻기, 환기, 외부인 출입금지 등 다양하고 엄격한 방역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교사들은 방역 관리의 주체가 되어 이행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보육실에서 마스크를 벗고

싶어 하는 유아의 마스크 착용을 지도해야 하고(교사A), 마스크 관리도 교사의 업무가 되었다. “마스크 담을 수 있는 통을 따로... 기성품이랑 좀 접목을 해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교사B의 이야기에서 교사들이 방역을 위해 자체적으로 적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이들 마스크, 그것 때문에도 부모님들의 많은 요구들이 있으셔서 그 보관의 업무가 하나 더 추가된 것 같아요.(교사C)

이러한 상황은 일상적으로 수행하던 위생관리와는 다른 새로운 역할을 교사에게 요구하고 있어, 교사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종일제 보육을 하며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언어적 상호작용을 지속하여 목이 쉬고(교사C), “마스크 성분이 안 좋은 건지, 이렇게 마스크만 하면 기침이 더 난다”는 교사도 있다는 이야기(교사D)에서 하루 8시간 이상 마스크를 쓰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교사의 어려움을 체감할 수 있었다.

(3) 체력적으로 지쳐가는 교사들

팬데믹이라는 세계적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던 보육활동에 변화가 있었고, 국내에서는 누리과정이 개정되어 교사들은 다양한 변화를 마주한 2020년이였다. 휴원과 정상등원이 사회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고, 체험학습 및 특별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교사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변화에 대응하며 교사들의 긴장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고, 교사들은 신체적으로 소진되어 가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저희도 긴급보육이라고는 했는데 유아반 아이들이 거의 올 출석이라서요. 그래서 거의 각 반에서 했고 누리과정 그 개정된 걸로 하면은 조금 더 체력적으로 선생님들이 힘든 부분이 생긴 것 같고...(교사C) 예전에는 특활선생님의 도움을 조금 받았던 것 같아요. 신체활동이라던지 미술활동, 음악활동 같은 경우에는 특활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니깐 그 부분을 신경을 그렇게 안 썼는데 그런 부분까지 유아들한테 다 교사가 고민을 하고 제공을 해야 하는 부분을 이제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교사A)

장시간의 마스크 착용 또한 신체적인 피로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 “중간 중간에라도 조금 휴게시간이 더 있었으면” 하는 교사C의 바램을 통해 마스크를 잠시 벗을 수 있도록 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같이, 보육교사의 체력적 소진을 막기 위한 논의와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4) 심리적으로 지쳐가는 교사들

언론에 보육교사의 감염과 해당 어린이집 전수조사에 대한 기사들을 접하며, 교사들은 혹시라도 자신이 집단감염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사B는 심리

적으로 위축되어 있다고 표현하였다. 특히 자신으로 인해 영유아들에게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고, 이로 인해 근무의 시간 외출이 조심스럽다고 응답하였다. “어디 마트를 가도 학부모님을 만나면 괜찮은 건가, 내가 여기와도 괜찮은 건가 싶어 두리번거리게 된다”는 교사D의 이야기에서 이들의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다. 교사들의 이러한 불안감은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으며, 자신 뿐 아니라 가족 특히 자녀까지 외출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교사C, 교사F). 교사들은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지만, 사람을 만나기 어렵고(교사A), 카페에 가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였다(교사D).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지원이 보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이다.

아이들하고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전파되는 거를 염려되는 마음에서 그동안 코로나가 시작하고 나서 외부활동을 정말 거의 안한 것 같아요. 휴가 때도 집에서만... 그런데 어머님들이 오히려, ‘아우, 선생님 왜 휴가도 안가셨어요?’ 막 이럴 정도로 외부활동을 안 한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함이 있는 것 같아요. 불안감이 아직 좀... 옮긴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거를 좀 위로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교사E)

(5) 가정 및 지자체의 지원요구

코로나 19 이후 교사들은 가정과의 소통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과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효과적인 방역과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과 어린이집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등원 전 발열 확인부터 상황에 따라 갑작스러운 하원이 이루어지는 때에 가정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어린이집 방역에 대한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장기간 긴급보육만 이루어지면 교사와 등원하지 않는 영유아의 애착을 위해 비대면 의사소통도 필요하고, 영유아들의 생활지도를 위해서도 가정과의 소통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배변훈련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가정에 오랜 시간 있는 동안 어머니들께서 힘들시다는 이유만으로 안 해주셔서 처음으로 되돌아가기도 하고...(교사F)

교사들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대해 많은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영유아의 입장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긴급보육으로 인해 등원하지 않는 영유아들의 가정보육 의존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한 해가 지속되면서 주양육자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긴급보육 시 영유아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및 장남감 대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교사D)고 이야기하였고,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견학기관 및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얼마 전에 청소년들을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예.. 자동차 극장 그런.. 이벤트 같은 거를 하더라구요. 구청에서. 그것처럼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가정에서.. 그런 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부모들에게 알려드려서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역 자체에서 생기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교사A)

2. 코로나19 유행 이후 어린이집에서의 보육 실태

코로나19 유행 이후 어린이집에서의 보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운영상의 특성과 감염병 대응 현황 및 영유아의 행동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과 지원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유행 이후 어린이집 운영상의 특성

2019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코로나19 발생 전후 어린이집의 현원을 비교해 볼 때 다소 줄어드는 경향은 보였으나 뚜렷한 변화가 보고되지 않았다. 특히 일반 미지원시설과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정부지원시설은 63.13명에서 64.31명으로 늘어나, 코로나19 발생은 어린이집에 등록된 현원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한편 긴급보육을 이용했던 원아는 대략 현원의 반수 정도로, 긴급돌봄 수요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될 때마다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하면 2020년 3월 보다 9월에 긴급돌봄에 대한 수요가 약간 증가하였다. 이는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긴급보육이 필요한 경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등록을 유지하려는 부모의 동기, 출석일수가 기준일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부모의 보육료 자부담이 면책되는 요인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발생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현원수에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도 어린이집의 재정운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5. 코로나19 유행 이후 어린이집 운영상의 특성

단위: 명, %

구분	정부지원시설 (n = 204)	미지원시설-일반 (n = 162)	미지원시설-가정 (n = 376)	전체 (N = 742)
코로나19 발생 전후 원아수 추이 ¹⁾				
정원	76.41(43.65)	57.50(48.41)	17.56(3.61)	42.46(41.46)
2019년 8월 현원	63.13(44.10)	49.72(46.75)	16.55(7.43)	36.60(38.35)
2020년 3월 현원	64.30(43.35)	45.86(45.20)	14.85(13.04)	35.22(38.90)
2020년 6월 현원 ²⁾	64.40(43.35)	45.28(44.16)	14.39(7.78)	34.89(38.02)
2020년 9월 현원	64.35(42.43)	46.48(43.81)	15.77(13.29)	35.83(38.11)
2020년 3월 긴급보육	23.35(21.41)	14.91(20.51)	9.16(42.01)	14.32(33.86)
2020년 9월 긴급보육	34.19(25.46)	24.51(23.29)	7.51(3.97)	18.56(20.99)

코로나19 이후 어린이집 일과 운영의 가장 큰 변화³⁾

개별놀이 중심의 자유놀이 운영	6.54(34)	13.03(65)	14.94(49)	10.99(148)
등하원 및 가정연계 방식 변화	47.88(249)	28.86(144)	25.00(82)	35.26(475)
지역사회 활동 불가	27.31(142)	32.46(162)	38.41(126)	31.92(430)
특별활동 미실시에 따른 오후일과 변화	6.15(32)	12.42(62)	17.07(56)	11.14(150)
일렬 배치 방식의 급간식 및 낮잠	12.12(63)	13.23(66)	4.57(15)	10.69(144)
계	100.00(520)	100.00(499)	100.00(328)	100.00(1,347)

주1. 원장 응답 결과임.

주2. 2020년 6월은 휴원이 해제되어 긴급보육에 해당하지 않음.

주3. 보육교사 응답 결과임.

한편, 코로나19 유행은 어린이집 일과 운영상 주요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되었다. 보육교사들은 일과 운영상 주요한 변화 요인으로 등하원 및 가정연계방식의 변화(35.26%)와 지역사회 활동불가(31.92%)를 꼽았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하여 등하원시 부모 등 외부인의 어린이집 원내 출입이 통제되면서, 기관과 부모와의 일상적인 의사소통방식이 크게 변화하였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등하원 및 가정연계방식의 변화(47.88%)를 정부지원시설에서 일과운영상 가장 큰 변화요인으로 꼽은 반면, 일반 미지원시설(32.46%)과 가정어린이집(38.41%)의 경우 지역사회 활동불가를 가장 크게 변화된 일과 운영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어린이집의 감염병 대응 실태

표 6에서와 같이 어린이집에서의 감염병 예방 관련 대응 정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이 5점에 가깝게 보고되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원장대상 조사결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중 가장 이행도가 높은 항목은 일일 건강체크 실시(4.99점), 손세정제 및 휴지의 충분한 비치(4.98점), 수시 환기(4.98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매일 어린이집 원아의 발열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일일 건강체크는 보육교직원이 전화나 직접 측정을 통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기로 입력하고 있어서 감염병 관리 관련 업무증가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한편 어린이집에서 감염병 관리 항목 중 다소 낮게 평가된 항목은 유증상자 격리장소 마련(3.68점)과 급식 중 일렬식사(4.03점) 등으로 조사되었다. 어린이집 내 보육공간이 협소할수록 유증상 영유아가 발생할 경우 보호자가 도착할 때까지 마땅히 보호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린이집 일과 중 자녀에게 의심증상이 발현될 경우 부모는 자녀가 즉각 귀가하는데 협조적인 편으로 나타났다(4.55점). 이처럼 어린이집에서는 유증상 영유아 발생 시 적절한 격리장소 확보의 어려움을 부모의 귀가 조치 협조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증상 보육교사 발생 시 어린이집의 대응 실태를 살펴보면, 대체교사 배치와 같은 외부의 인력지원보다 기관 내에서 자체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즉, 유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원내 인력조정을 통하여 보육공백을 메우고, 유증상 교사에게 출근정지를 내리는 빈도가 많았다. 특히 교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정부지원시설의 적극적인 대응이 두드러졌다(44.88%). 한편, 정부미지원시설의 유증상자 미발생률(미지원시설-일반 75.46%, 미지원시설-가정 77.72%)이 정부지원시설(51.22%)에 비해 20% 이상 높게 나타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유 인력이 적은 편인 정부미지원시설에서 보육교사가 본인의 결근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우려해 혹시라도 유증상을 보고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6. 어린이집의 감염병 대응 실태(원장 보고) 단위: 점, %

구분	정부지원시설 (n = 205)	미지원시설-일반 (n = 163)	미지원시설-가정 (n = 377)	전체 (N = 745)
감염병 확산 예방 실태¹⁾				
비상연락 체계 마련	4.82(.52)	4.87(.41)	4.83(.49)	4.84(.49)
손세정제 및 휴지 충분한 비치	4.98(.14)	4.98(.13)	4.97(.20)	4.98(.17)
일일 건강체크 실시	4.99(.07)	4.99(.78)	4.99(.72)	4.99(.07)
감염예방 필수물품 충분한 배치	4.90(.34)	4.83(.45)	4.85(.45)	4.86(.42)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실시	4.95(.20)	4.95(.24)	4.94(.29)	4.94(.26)
급식 중 일렬 식사	4.24(.99)	4.05(1.06)	3.91(1.13)	4.03(1.08)
유증상자 격리 장소 마련	3.79(1.27)	4.01(1.20)	3.48(1.42)	3.68(1.35)
의심증상 보육교사 대책 마련	4.86(.38)	4.70(.66)	4.65(.73)	4.71(.64)
매일 소독	4.92(.28)	4.95(.23)	4.94(.26)	4.94(.26)
의심증상 기타종사자 대책 마련	4.64(.76)	4.56(.94)	4.58(.85)	4.69(.85)
수시 환기	4.96(.22)	4.96(.19)	4.98(.13)	4.98(.17)
유증상 자녀의 의심증상 발현 시 즉각 귀가 여부¹⁾				
유증상 보육교사 발생 시 원내 대응 실태				
유증상 교사 미발생	51.22(105)	75.46(123)	77.72(293)	69.93(521)
진찰/검사 결과확보 전까지 정상출근/경과 관찰	1.46(3)	.61(1)	.27(1)	.67(5)
진찰/검사 결과확보 전까지 출근정지/원내업무조정	44.88(92)	14.72(24)	15.65(59)	23.49(175)
진찰/검사 결과확보 전까지 출근정지/대체교사배치	2.44(5)	9.20(15)	6.37(24)	5.91(44)
계	100.00(205)	100.00(163)	100.00(377)	100.00(745)

주1.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한 결과임(5 = 매우 그러함, 1 = 전혀 그렇지 않음).

3) 코로나19가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표 7에서와 같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영유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사한 결과, 장기적인 발달상의 영향보다는 일과 중 어린이집에서 보이는 행동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별활동이나 실외활동의 부족으로 인한 무료함과 활기 부족(41.13%)을 가장 큰 부정적 행동변화로 꼽았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바깥놀이와 외부강사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좁은 실내 보육공간에서 교사와 원아가 장시간 함께 생활하는 데서 오는 단조로움과 폐쇄적인 상황이 영유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표 7. 코로나19가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보육교사 보고) 단위: %, 점

구분	영아 (n = 1,041)	유아 (n = 306)	전체 (N = 1,347)
영유아의 부정적 행동 변화¹⁾			
습관형성의 어려움 또는 퇴행	9.22(96)	6.21(19)	8.54(115)
장기결석 또는 적응프로그램 미실시에 따른 초기 부적응	29.49(307)	32.03(98)	30.07(405)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행동 증가	15.47(161)	16.01(49)	15.59(210)
상호작용 감소로 인한 언어·사회성 발달 지연	4.61(48)	4.90(15)	4.68(63)
특별활동·실외활동 부족으로 무료함 및 활기 부족	41.21(429)	40.85(125)	41.13(554)
계	100.00(1,041)	100.00(306)	100.00(1,347)
감염병 대응 지침 적용 이후 신입원아 적응상의 어려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으로 친밀감 형성 곤란	33.24(346)	26.47(81)	31.70(427)
입구에서의 부모 분리로 영유아의 불안감 증가	14.12(147)	15.36(47)	14.40(194)
가정과의 연계 제한으로 부모의 불안감 증가	6.72(70)	10.46(32)	7.57(102)
입소시기 차이로 적응지도 곤란	38.71(403)	32.68(100)	37.34(503)
OT 미실시 등으로 가정과의 신뢰관계 미형성	7.20(75)	15.03(46)	8.98(121)
계	100.00(1,041)	100.00(306)	100.00(1,347)
마스크 착용의 영향¹⁾(N = 847)²⁾			
마스크 착용에 대한 스트레스 발생(숨쉬기 어려움 등)	3.99(1.11)	3.93(1.09)	3.97(1.10)
미착용·관리소홀 등에 대한 마스크 관련 훈육 증가	3.09(1.26)	3.47(1.23)	3.22(1.26)
언어적 의사소통의 제약	3.51(1.17)	3.50(1.15)	3.50(1.16)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제약	3.69(1.20)	3.74(1.18)	3.71(1.20)
마스크 착용자의 정서나 의도 파악의 어려움	3.46(1.12)	3.41(1.13)	3.44(1.13)
의사소통 제약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	2.85(1.17)	2.97(1.15)	2.89(1.27)

주1. 5점 척도 응답의 결과임(5 = 매우 그러함, 1 = 전혀 그렇지 않음).

주2. 일과 중 영유아가 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응답한 학급의 교사만 응답함.

이밖에 장기결석이나 적응 프로그램 미실시에 따른 초기 부적응(30.07%),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행동 증가(15.59%) 등이 보고되었다. 감염병 지침 적용이후 부모의 적응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별로 입소 일정이 제각각 잡히면서, 신입원아 적응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입원아 적응 과정에서 응답자의 37.34%가 입소시기 차이로 적응지도에 곤란을 겪었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

용으로 친밀감 형성이 어려웠다는 응답도 31.70%에 이르렀다. 기존에 활용하던 신입원아 입소적용 프로그램은 코로나19의 감염병 관리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작동하기 어려우며, 이는 대안적인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마스크 착용으로 숨쉬기 어려움 등 스트레스 발생(3.97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제약(3.71점)등의 문제가 보고되었다. 그런데 원아들의 마스크 미착용이나 관리소홀과 관련하여 훈육이 증가(3.22점)하거나, 의사소통제약에 따라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2.89점)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 및 요구

표 8에는 어린이집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어떤 지원을 받았으며,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 향후 어떤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지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어린이집 대상의 지원을 살펴보면, 체온계(96.38%), 마스크(96.38%), 소독약품(92.35%)과 같은 물품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수혜율 또한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물품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운영비, 인건비 등 예산지원과 대체인력, 교사에 대한 인력지원이 병행되었다. 방역예산용 운영비 지원(53.02%)과 원아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29.66%)의 경우 물품지원에 비해 수혜율은 높지 않지만 그 중요도는 다소 높게 평가받았다.

감염병 대응지침 및 관련 규정의 적절성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력지원으로 조사되었다. 즉, 자가격리 또는 유증상 보육교사나 조리원이 발생할 경우 지원되는 외부 대체교사나 인력과전에 대하여 그 수혜율과 만족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예방의 측면에서 그간 확대되어왔던 외부인력 지원정책이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한다. 기관 입장에서는 대체교사나 인력 역시 외부인이기 때문에 이들의 원내 출입으로 인해 감염병 관리의 측면에서 위험부담을 감수하게 된다. 즉 외부지원인력을 통한 일시적인 보육공백 해소 보다 비담임교사 등 내부 여유 인력 활용이 기관 입장에서 실제 활용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표 8.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 및 요구 단위: %, 점

구분	항목		
	지원받음	지원받지 못함	계
감염병 대응 관련 지원 수혜 여부 ¹⁾			
자가격리 또는 유증상 보육교사에 대한 대체교사 지원	22.42(167)	77.58(578)	100.00(745)
자가격리 또는 유증상 조리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14.09(105)	85.91(640)	100.00(745)
방역 또는 소독 관련 인력 지원	50.60(377)	49.40(368)	100.00(745)
체온계 지원	96.38(718)	3.62(27)	100.00(745)
마스크 지원	96.38(718)	3.62(27)	100.00(745)
소독약품 지원	92.35(688)	7.65(57)	100.00(745)
방역예산용 운영비 지원	53.02(395)	46.98(350)	100.00(745)
원아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29.66(221)	70.34(524)	100.00(745)

감염병 대응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¹⁾³⁾	중요도(전체) ⁴⁾	중요도(수혜자)	만족도(수혜자)
자가격리·유증상 보육교사에 대한 대체교사 지원($n=109$)	4.73(.74)	4.53(.88)	3.36(.92)
자가격리·유증상 조리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n=91$)	4.73(.78)	4.52(.92)	3.17(.99)
방역 또는 소독 관련 인력 지원($n=421$)	4.46(1.00)	4.49(1.00)	3.54(1.00)
체온계 지원($n=724$)	4.74(.66)	4.75(.64)	4.05(.91)
마스크 지원($n=737$)	4.79(.62)	4.79(.62)	3.73(1.04)
소독약품 지원($n=711$)	4.81(.59)	4.81(.59)	3.91(.96)
방역예산 확보를 위한 운영비 지원($n=478$)	4.82(.63)	4.82(.60)	3.48(1.10)
원아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n=354$)	4.82(.70)	4.81(.66)	3.61(1.24)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 ²⁾³⁾	영아	유아	$t(df)$
영유아 대상의 감염병 예방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4.01(.92)	4.00(.86)	.13(1,345)
개별놀이 중심의 보육활동 제공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	3.96(.93)	4.12(.89)	2.64(1,345)**
비대면 방식의 가정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89(1.05)	4.12(.87)	3.51(1,345)***
안전하게 방문 가능한 현장체험 장소 발굴	3.34(1.48)	3.66(1.41)	3.29(1,345)**
안전하게 바깥놀이를 할 수 있는 인근 실외놀이터 확보	3.64(1.40)	3.95(1.22)	3.49(1,345)**
영유아 1인당 보육면적 확대	3.56(1.30)	3.99(1.09)	5.21(1,345)***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감소	3.79(1.43)	4.11(1.24)	3.61(1,345)***
장애영유아를 개별적으로 보호하고 지도하는 대책	3.33(1.51)	3.91(1.23)	6.11(1,345)***

주1. 원장 응답의 결과임

주2. 교사 응답의 결과임.

주3. 5점 척도 응답의 결과임(5 = 매우 그러함, 1 = 전혀 그렇지 않음).

주4. 해당 정책에 따른 지원의 수혜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포함되었음.

** $p < .01$, *** $p < .001$.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정책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보육활동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이 보고되었다. 영유아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영아에 비해 유아 대상 정책요구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 = .13\sim 6.11$, $p < .01$). 특히 유아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요구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개별 놀이 중심의 보육활동 제공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4.12점)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놀이중심의 제4차 표준보육과정 취지를 살린 대안적인 프로그램이 보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비대면 방식의 가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12점)에 대한 정책요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화나 서면, SNS 뿐만 아니라 줌(Zoom)과 같은 비대면 매체를 활용한 가정과의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유아와 부모, 기관 간 아동중심의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안전하게 방문 가능한 현장체험 장소 발굴이나 안전한 실외놀이터 확보에 대한 요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안전한 실외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맞춤형 대안은 아니지만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감소, 영유아 1인당 보육면적 확대 역시 보육교사들의 높은 정책요구도를 반영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어린이집에서의 생활과 기관 운영 방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실증적인 자료가 미미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코로나19가 보육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보육교직원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정책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 대상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유행 이후 보육현장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화된 특징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두 가지 연구방법을 통해 얻은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코로나19 유행 이후 보육현장의 다양한 주체는 각각 고유한 경험과 요구를 가지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영유아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사회성이나 언어 발달이 지연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두드러지지는 않으나, 일과 중 활기가 부족하거나 높은 스트레스로 인한 행동적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경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증가된 업무 자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소진되고 있으며, 변화된 상황에서의 보육을 위한 프로그램 요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장은 정부의 대응지침에 근거하여 감염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분명한 한계를 경험함과 동시에 보육현장에 지원되던 기존의 정책과는 다소 다른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보육 현장의 각 주체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변화된 환경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복합적인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자료 수집 또한 다양한 관점이 요구된다는 혼합방법론의 실용주의적인 관점에 근거하여(양성은, 2006),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중심으로 종합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육현장의 정책 수용도와 대응 민감도는 높은 수준이나,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지원은 현장의 요구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정부에서 보육현장에 공지한 대응 지침이 기본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구체성이 떨어짐과 동시에 최소 수준 중심의 정책이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대응지침의 경우, 일상적인 보육 시에는 발열체크, 손 씻기, 소독, 출입관리, 마스크 착용과 같이 일괄 제시된 규정을 성실하게 따르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영유아가 마스크 착용 또는 거리두기에 발달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상적인 문제부터 보육교직원 중 유증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어린이집 관계자 중 접촉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 발생 등의 특별한 상황발생 시 적절한 대응방법에 대한 지원이나 판단이 제한되어 대응지침의 효과가 급격하게 취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은 보육상황에 보다 적절하게 강화되고, 개별 어린이집에 자가격리대상자 등 감염병 관련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관련 주체별 의무와 권한, 그리고 책임 소재를 명확화하는 지침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김정화, 황옥경, 권연희, 박지윤, 정연아, 2020). 이러한 지침의 구체화는 보육교직원

이 코로나19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감염병 확산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불안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비대면 시대 활용 가능한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하여 보육현장의 수요가 매우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즉,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영유아간 거리두기를 실시함에 따라 자유놀이 및 대소집단 시간에 중전과는 다른 방식의 놀이와 활동의 진행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관계로 부모와 건물 밖에서 분리를 하고, 적응 기간 중 부모의 원내방문이 제한되며, 오후 일과 시간 중 실시되던 특별활동이 전면 축소되고, 지역사회 활동이나 원외 놀이터 이용 등이 제한됨에 따라, 그 동안 일상적으로 진행되었던 보육과정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장경은, 최혜영, 유준호, 권수정, 2020).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보육현장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적응 또는 대체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다양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들을 보육의 실제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금번 코로나19는 감염병 확산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기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능동적인 지원이 필수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 어린이집의 설립유형, 소재 지자체의 지원 여부, 담당 영유아의 연령 등에 따라 일부 응답의 차이가 발견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들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가 일관되게 발생하지 않아, 감염병 대응 실태나 경험의 경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이는 영유아가 등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예방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의 구분 없이 보육료가 지원된 이례적인 상황에 기인한다. 즉, 출석 영유아의 수, 어린이집의 설립유형 및 지방정부의 보육예산 규모와는 관계없이 전국의 어린이집이 현원을 기준으로 운영비를 지원받는 예외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은 재택근무나 봉쇄조치 등에 따라 보육수요가 줄어들음에 따라 어린이집을 포함한 영유아 돌봄 종사자의 고용이 불안정적인 것으로 보고된 외국의 양상과는 다른 것으로(Bedrick & Daily, 2020), 민간이나 소외 지역의 어린이집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반면, 주목해야 하는 점은 설립유형이나 지자체의 지원 수준과는 무관하게 실외놀이터나 대체놀이터가 없는 어린이집, 업무배제 교사 발생 시 원내 교사의 업무조정만으로 업무공백의 대응이 어려운 어린이집,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 보육공간이 협소한 어린이집과 같이 단위 어린이집의 구조적 질 수준이 낮은 경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공간, 인력 또는 운영상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집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코로나19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사회적 현상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Malik, Hamm, Lee, Davis, & Sojourner, 2020). 무엇보다 보육의 질 특성 중 구조적 질이 높은 경우 일반적인 보육 상황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넷째, 코로나19의 유행은 시설보육 중심의 양육 패러다임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야기하였

다. 우리 사회에서는 저출산이 심화됨에 따라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정이 아닌 어린이집에서 생애 초기의 자녀를 대리양육하는 방식이 대두되었다. 특히 무상보육의 전면 시행에 따라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부모 또는 개인 대리양육자가 양육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이 보편화되어, 2019년 기준 2세의 91.3%, 1세 영아의 81.1%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 이는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53.5%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통계청, 2020) 어린이집 이용률은 실재하는 대리양육의 요구를 초과하는 것으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대리양육의 필요에 따라 양육방식을 선택하기 보다는 일괄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애 초기의 과도한 시설보육 이용은 그동안 영유아의 권리 차원에서 우려를 갖게 하는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보육정책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이라는 시설보육 중심에 그 초점을 두어왔다(보건복지부, 2013, 2017).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가정에서의 양육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양육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관점이 사회 전반에서 대두되었다. 따라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가정보육과 시설보육이 공존하는 양육환경 조성으로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양육패러다임은 무엇보다 아동중심의 양육환경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기초로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긴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단기대책으로는 대안적 보육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프로그램 개발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과도한 정보나 불안감으로 이어지지 않는 수준에서 적절하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및 보급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UNICEF, 2020). 이 외에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개별놀이 중심의 보육활동 자료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현장에서 제4차 표준보육과정의 방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비대면 방식의 가정 연계 프로그램과 실외 및 지역사회 활동 제한에 따른 대체 활동 또한 보육현장에서 새롭게 요구되고 있으므로(장경은 등, 2020), 새로운 방법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지자체는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방문·활용할 수 있는 현장체험 장소를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는 현재 보급되어 있는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 및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체계화 및 정교화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에서 제공한 방역지침은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직적인 기준은 되나, 실제로 코로나19 관련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현장에서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취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단계별 구체적인 대응요령이 요구되며(김정화 등, 2020) 어린이집 재량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정책의 개선이 시스템의 전산화 및 고도화와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육현장에서는 원아의 건강상태나 긴급보육 신청을 원장 또는 교사가 개별적으로 전화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수기로 접수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초·중등학교에서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이러한 시스템을 영유아에게 확대 적용하거나 연장반 도입을 위해 인프라가 마련된 어린이집의 자동전자출결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등의 구체적인 정책개선이

요구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일선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직원이 경험하는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서의 일과와 생활이 변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이외에 보육교직원은 다중이용시설인 어린이집의 근무 특성상 감염에 취약하여 자신의 가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함을 경험하며(Lopez et al., 2020), 자신이 다른 경로로 감염되어 어린이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로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육교직원의 마음건강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정익중, 2020. 10). 다만,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이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비대면 시대에 활용 가능한 새로운 방식의 스트레스 경감 또는 관리 방식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장기 정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번 코로나19는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구조적 특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수적임을 다시금 확인한 기회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질 높은 보육이 코로나19의 보호요인은 일관되게 밝혀진 결과로(Hashikawa et al., 2020; Malik et al., 2020), 우리나라의 보육현장에서도 낮은 교사 대 아동 비율과 원내 실외놀이터 및 대체놀이공간 확보, 여유 있는 1인당 보육면적과 격리공간으로 사용 가능한 원내 공간의 확보, 상근 보육교사의 배치 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이후 다른 감염병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구조적 질 요인이 유용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그간 과정적 질에 대한 관심으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구조적 질에 대한 관심이 환기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비대면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보육과정을 연구하고, 그 효과를 장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금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교사-영유아간 상호작용 및 영유아간 상호작용의 방식에 변화가 요구되었으며, 다양한 비대면 방식의 보육과정 운영이 자생적으로 개발되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등원하지 못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교사가 화상으로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상호작용이 활용된 바,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지속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가 실시된 2020년 여름 시점에서는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이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영유아가 일과 중 행동적 어려움은 경험하더라도 나름의 방식으로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고 있음을 시사 하는 것으로, 장경은 등(2020)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단기적인 적응이 장기적으로는 영유아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을 통해 종단적인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마스크를 쓰지 않은 담임교사의 얼굴을 본 적 없는 신입원아와 부모가 어떠한 방식으로 기관에 대한 신뢰와 안정감을 쌓을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보육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수준의 규모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연구대상의 시도별 분포와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분포가 모집단의 분포와는 다소 상이하였다. 특히 지역별로 확진자 상황과 코로

나19 관련 지원정책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의 해석과 일반화에 있어서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시작되었으나 인건비 지원의 문제로 전면 실시되지 못한 연장반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에 큰 영향을 미친 원아 모집, 교사 수급, 원내 교사 업무 조정 등의 여건이 운영하지 않은 어린이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정부의 2차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2020년 8월 15일 이후 시점에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에 감염병 확산 정도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침이 상이한 시기의 실태 및 경험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육현장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질적자료 뿐만 아니라 양적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의 단기 및 중장기 정책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정화, 황옥경, 권연희, 박지윤, 정연아 (2020. 10). **코로나19와 보육현장의 영유아, 교사: 대응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은가**. 2020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 주제발표 논문, 온라인.
- 박영아, 조미현 (2020). 어린이집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어려움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25**, 145-172. doi:10.37918/kce.2020.11.125.145
- 박인숙, 배지현 (2020).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원장의 어려움과 지원요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25**, 1-23. doi:10.37918/kce.2020. 11.125.1
- 보건복지부 (2013).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7).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9). **보육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0.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세종: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 보건복지부 (2020. 3). **어린이집 휴원 기간 4월 5일까지 연장**.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3592에서 2021년 1월 20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20.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V-2판**. 세종: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 보건복지부 (2021.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VII-2판**. 세종: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 손희나 (2020).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어린이집원장의 어려움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방안 :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성은 (2006). 가족연구를 위한 혼합방법론에 대한 고찰.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4**(9), 1-8.

- 장경은, 최혜영, 유준호, 권수정 (2020. 10). **코로나19와 영유아의 사회적 경험: 긴장과 도전 그리고 지원을 찾다**. 한국보육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 온라인.
- 전아현 (2020). COVID-19로 인한 등원 불가기간 보육교사의 긴급보육 경험.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익중 (2020).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해외 대응과 그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13, 47-59.
- 정익중 (2020. 10). **코로나19와 아동기 정신건강**. 제10차 한국생애학회 추계학술대회 주제발표 논문, 온라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n.d.). **국내 발생 현황**. 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brdId=1&brdGubun=11&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에서 2021년 2월10일 인출
- 통계청 (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전: 통계청. http://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572&board_cd=INDX_001 에서 2021년 1월 12일 인출
- 최예린 (2020). 코로나 19에 대한 보육교사의 정서적 경험과 달라진 어린이집 일상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연구**, 22(1), 253-279. doi:10.15409/riece.2020.22.1.12
- Bedrick, E., & Daily, S. (2020). *States are using the CARES Act to improve child care access during COVID-19*. Bethesda, MD: Child Trends. *ERIC*, ED607069
- Hashikawa, A. N., Sells, J. M., DeJonge, P. M., Alkon, A., Martin, E. T., & Shope, T. R. (2020). Child care in the time of Coronavirus disease-19: A period of challenge and opportunity. *The Journal of Pediatrics*, 225, 239-245. doi:10.1016/j.jpeds.2020.07.042
- Lopez, A. S., Hill, M., Antezano, J., Vilven, D., Rutner, T., Bogdanow, L., et al. (2020). Transmission dynamics of COVID-19 outbreaks associated with child care facilities - Salt Lake City, Utah, April-July 2020.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69(37), 1319-1323. doi:10.15585/mmwr.mm6937e3
- Malik, R., Hamm, K., Lee, W. F., Davis, E. E., & Sojourner, A. (2020). The Coronavirus will make child care deserts worse and exacerbate inequality.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Retrieved from https://cdn.americanprogress.org/content/uploads/2020/06/18123133/Coronavirus-Worsens-Child-Care-Deserts.pdf?_ga=2.201509012.400569276.1616573347-1778073401.1616573347
- Morgan, D. L. (1997). *Focus groups as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Moustakas, C.(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London, UK: Sage.
- UNICEF (2020). *Psychosocial support for children during COVID-19: A manual for parents and caregivers*. <https://www.unicef.org/india/media/3401/file/PSS-COVID19-Manual-ChildLine.pdf>에서 2021년 1월 8일 인출

논문투고: 21.02.14
수정원고접수: 21.03.15
최종게재결정: 21.04.04